

New Leader VII.

마음을 지키는 자(사마르)가 성공하며 복을 받는다. ('사마르'의 비밀)

1. 여호수아 리더십의 성공 비결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의 한 사람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한 사람이 여호수아이다.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이다. 모세의 뒤를 이을 리더의 자리는 누가 생각해도 쉬운 자리가 아니다. 선대가 훌륭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것이 선대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차기 리더에게 그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모세의 형상이 아주 강력했고, 사람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잘 인도할 것인가가 여호수아의 질문일 것이며, 소망일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모든 영역의 일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걱정과 달리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여호수아에게 성공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7~8절이다.

[여호수아 1:7-8]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7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my servant Moses gave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at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8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aw depart from your mouth;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여호수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명확한 답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구절의 말씀은 '형통하리니,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이다. 자기가 맡은 일을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다. 여기에 그 형통의 비밀이 있다.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선포된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영어로 보면 더 명확하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성공하기를 원하셨고, 더 나아가 형통(번성)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다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지으시고 허락하신 창조의 복을 누려야 한다.

2. 어떻게?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이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1) 율법

율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구조, 골격, 뼈대'와 같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와 골격이다. 구조와 골격이 있어야 그 모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이 있다. 그것이 '율법-토라 (구조, 골격)'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특별히 '생각-훈' 안에 생각의 구조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백성의 사고관과 세계관을 만들어 주셨다. 그 세계관이 바로 '율법-토라-구조'이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전혀 다른 생각의 구조를 가진 백성들과 전쟁해야 한다. 이방 백성들의 생각에서 만들어 낸 우상들과 그들의 문화는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다른 증표로 율법을 모세 때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400년 넘게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애굽의 세계관으로 가득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노예처럼 산 것이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토라'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다. 왜 같은 기독교인인데, 어떤 일을 바라보는데 믿음의 사고로 바라보는 사람과,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사고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 이유는 '뼈대,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말씀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말씀보다 세상 철학, 이념, 사상을 더 우선으로 말하는 것이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율법-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의 구조를 세운 것이다. 그래야 믿음의 사고를 하며, 그 사고방식이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모세의 리더십은 아주 명확하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 말씀이었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람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변함이 없다.

(2)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하신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다. 시간 될 때마다, 위기의 상황에서만 읽지 말라는 것이다. 육신의 자양분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말씀은 '빵, 떡'으로 비교된다. 무슨 말인가? 주식이라는 것이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는 자가 성공한다고 말씀하신다.

(3) 묵상하여

'묵상' (하가_ 중얼거리다, 신중히 생각하다) : 묵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말한다. 생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이 아니라,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이 아니라, 예와 아멘으로 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 영적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일(묵상)에 영적 원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순서로 깨닫고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다.

이슬람 선생 '이맘'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슬람 배경지식 안에서 성경을 이해할 것이다. 자기방식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무신론자가 말씀을 읽는다면, 그 당시의 철학과 사상 속에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신학도 마찬가지이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묵상'이라고 말했을까? 자기의 지식 안에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적용을 할 수 없다. 삶과 분리되는 괴리된 '읽'이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만들어지는 영의 흐름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입으로 말하라. 그때 오는 느낌과 감각이 있다. 그것을 깨치해야 한다. 그 감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왜 영적 감각이 중요한가? (속사람의 감각이 있다. 신령한 자의 감각이 있다. 육의 속한 사람과 다른 감각이다).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이다. 출처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은 상황을 자기에게 맞게 해석하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에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마음에 새겨진다. 마음에 오는 감동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성보다 먼저이다.

[마가복음 12: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0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말씀을 보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먼저이다. 혼과 생각도 중요하다. 그런데 먼저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묵상을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기록한 후에, 그 마음이 지성과 이성이 되어야 한다. (순서를 정확히 해야 한다). '신앙 위에 신학'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3. 지키다 - 샤마르

마지막은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다. / 지키다 (샤마르) - '보호하다. 지키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여 지키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보호한다는 샤마르의 뜻은 성을 파수하는 파수꾼의 역할과 같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르'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샤마르' 한다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왜 하나님은 '샤마르'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르 하려는 그 태도가 아담을 보호하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르 할 때 하나님은 에덴의 복을 약속하셨다. '샤마르'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성공하여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샤마르'의 삶이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샤마르' 하신다. 복을 주신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비밀을 적용하여,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자. 아멘.